The Future _ Real Power XI.
강함이 연단을 통과하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1.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다.

온유함은 강함이 연단을 통과해 숙성되어진 열매이다. 온유함은 강력한 힘이 훈련을 통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함과 약함의 정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보여지는 힘의 강함이 아니다.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내면의 상태는 외적인 상태와 열매로 알게 되는 것처럼, 진정한 강함과 약함은 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권위와 온유함의 관계

영적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위'에 대한 이해이다. 하나님을 권위자로 건강하게 인정하게 될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온유함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위'에 대한 부분이다. 권위는 강함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항상 몽둥이의 힘으로 통솔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학생들에게 있어 선생님에 대한 권위란, 선생님 손에 들린 큰 몽둥이가 아니다. 선생님에게는 그 몽둥이가 권위였다. 그 몽둥이가 강함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참다운 강함의 모습이 아니다. **권위는 내가 그 권위를 소유한 개념이 아니다. 진정한 권위는 권위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힘의 중심이 아니라), 권위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다운 권위이다**.

3. 온유한 자, 모세

[민수기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권위와 힘, 그리고 온유함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모세이다. 말씀에 보면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세의 배경을 생각해보라. 이집트 왕자 출신의 모세는 힘의 상징이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족, 모세의 지위와 권위로 못할 것이 없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의 연단을 통해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성경은 이집트 왕자 출신의 모세와 연단을 통해 '온유한 자'를 보여주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가 정의 되어버린 이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의 온유함은 그의 전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것이다. 그가 40세였을 때, 힘으로 불의한 이집트 병사를 죽였다. 그의 칼집에 있던 칼이 모세 자신이었고 강함의 상징이었다. 그의 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완전히 실패했다. 완전히 깨어졌다.

모세 힘의 중심은 무엇인가? '자기 의'이다.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여 심판한 것이다. 자기가 판단자가 된 것이다. 모세의 이런 상태는 자기 멋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 돌아다니는 '야생마'와 같다. **이런 야생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빼는 연단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 머물며 양을 돌보는 일을 한다. 그의 손에 있던 칼은 없어지고,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가 된 것이다.

[출애굽기 3: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 하나님의 연단과정

(1) 세상의 힘이 빠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사람의 강함, 즉 세상의 힘이 빠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물을 빼는 시간과 같다. 모두 빠져야 한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만심이 빠져야 한다. **사람의 힘이 빠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진 사람이 온유한 자이다**.

(2) 온유함은 깨어짐의 마지막 결과이며 열매이다.

결국, 모세는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출애굽기 3:11의 고백을 보라. 모세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한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원리가 있다.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올려지는 '진정한 가치'가 된다.

세상은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힘을 키우고, 성공하려 하고, 남과 비교한다 (백설공주 왕비의 거울).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스스로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리로 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 순간은 자기를 경멸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을 통해 자기를 돌아 본 사람에게 나타난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옛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말한다. 이미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간다**.

[출애굽기 3: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온유함은 육신의 강함이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힘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게 된다. 이 깨어짐은 우리의 힘이 완전히 끝이 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시점에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5. 온유한 자 –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다. 어떻게 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모세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강하신 분,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라.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잘 훈련된 명마의 상태이다.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상태에 나타난 기품과 품위가 온유함이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홍해 앞에서도, 사막에서도,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신뢰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증거이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신뢰함으로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땅을 얻는다**.

6. 온유한 자 – 상한 마음의 사람

그 온전한 믿음은 '깨어짐' broken spirit - 상한 마음으로부터 온다.

[시편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오늘 시편 51:17 다윗의 고백은,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와 힘을 사용한 일에 대한 철저한 회개이다. 그 회개가 다윗의 심령을 상한 마음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일에 대한 참회가 상한 마음이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이다. 상한 심령이란 외적, 내적 모두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된 상태를 말한다. 겉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나의 힘으로 외적 상태의 힘을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은 내면의 저항이 아니라, 성령님을 향한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된 상태이다. 팔복을 기억하라. 온유한 자의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애통하는 자'의 상태를 통과해야 한다. 연단을 통해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 상함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온유한 자의 복을 받도록 하자. 모세와 다윗처럼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숙성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잘 준비된 온유한 명마가 되도록 하자.

7. 온유함의 훈련 – 시간이 필요하다.

(1) 시간이 필요하다 – 모세의 경우 : 연단의 시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2)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필요하다 – 다윗의 경우 : 깨어짐의 시간은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히 임재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자.